10
2018

재외동포의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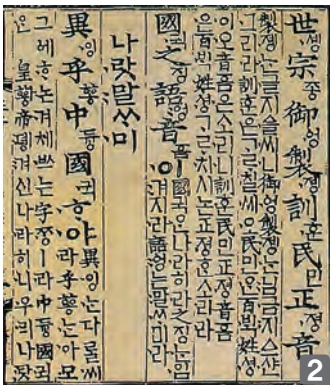
특집: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통일 위한 재외동포 역할 모색한 자리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배우기 쉽고, 들리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쉬운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 통해 창제자와 원리, 운용법 밝혀… 세계 유례없는 일

1


2

‘한글’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글이다.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즉위 25년(1443년)에 만들어 즉위 28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하였다. 처음에는 28자였으나 지금은 24자만 쓰인다. 우리 민족은 고유의 글자가 없어 삼국 시대부터 중국의 한자를 들여다 사용했다. 그러나 한자는 글자의 수가 많고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말과 맞지 않아,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우리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세종대왕은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우리글을 완성하고,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름하였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우리글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한글이란 명칭이 없었고, 주로 ‘언문’이라 불렀다. 한글은 1910년 이후 어학자 주시경 선생에 의해 한글로 불리기 시작했다. 한민족의 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글, 크고 올바른 글이란 뜻이다. 한글을 가로로 쓴 역사는 매우 짧다. 최초의 한글 전용 신문인 1896년 ‘독립신문’은 세로로 썼고 해방 후에도 국내 주요 신문은 1990년대 초까지도 세로쓰기를 했다. 띄어쓰기하게 된 것도 19세기 들어와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글은 배우기 쉽고, 우리 말을 들리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쉽다”며 “한글의 가장 위대한 점은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3

새 문자 훈민정음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국보 70호이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28자를 정인지, 성삼문, 신숙주 등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실험, 검증한 뒤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백성들에게 새 문자 훈민정음과 그것을 만든 원리와 운용 방법을 알렸다. 자기 나라의 문자를 만든 창제자가 누구인지, 더구나 새로 만든 문자의 창제 원리와 그 음가와 운용법을 밝히고 해설한 책을 간행한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창

1~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훈민정음(해례본).
3. 2009년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 왼손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들고 있다. 올해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다.

CONTENTS

2018. 10

02 한국의 얼 "배우기 쉽고, 들리는 대로 표현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쉬운 '한글'"
'훈민정음 해례본' 통해 창제자와 원리, 운용법 밝혀… 세계 유례없는 일

04 특집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통일 위한 재외동포 역할 모색한 자리
79개국 400여 명 한자리 모여 모국과의 상생발전 논의

06 화제 남북 정상, '핵없는 한반도' 원칙, 비핵화 구체방안 담은 '평양공동선언' 채택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참관하에 영구폐기 밝혀

08 기획 81년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죽음의 유배길' 6,500km
고려인 17만명, 이유. 행선지 모른 채 화물칸서 짐짝처럼… 1만여 명 사망

10 글로벌 코리안 美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아시아 책임자 자리 오른 오미연 국장
동티모르大에서 5년째 자비로 한국학센터 운영하는 최창원 교수
아르헨티나 정부 공공혁신부문 최고 책임자 변얼 씨… 3형제가 모두 고위 공직자

12 한민족 공감 호찌민,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인사들과의 교류, 희귀자료에서 첫 확인
"호찌민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13 지구촌 통신원 11월 美중간선거… 20년 만에 한국계 의원 탄생할까… '숲트리오' 뛴다
캘리포니아 영 김, 정글 프라이머리 1위에 지지율 앞서 당선 가능성

14 동포소식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교육부 설립인가, 한국 학력 인정 외

17 동포 캘린더 中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인구 75만7천여 명… 자치주 전체 인구의 36% 외

18 유공동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파묻혀 있던
'直指'와 외규장각 '의궤' 찾아낸 서지학자 박병선
의궤 찾아낸 후 도서관 떠났지만 연구 계속하고 반환운동 앞장 서

19 주목! 차세대 '현악기 명장' 스트라디바리 후예로 우뚝 선 20대 한국 청년 정가왕 씨
세계 최고권위 伊 현악기제작 크레모나 콩쿠르서 우승 '쾌거'

20 OKF 뉴스 '세계한인차세대대회'서 참가자들 한민족 정체성 함양 외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22 동포문학 유적에 핀 꽃 _ 인니 암바라와 조선인위안부 수용소를 다녀와서
문인기(인도네시아) 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23 통신원 칼럼 새로운 한류의 물결, 싱가포르에 울려퍼진 K-클래식

24 고향의 맛 · 멋 단출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사계절 전국음식 된 '충무김밥'
김밥 안에 별도의 식재료를 넣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 있어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이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란 주제로 개최한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79개국 400여 명의 한인회장과 국내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해 지역별 현안토론, 정책포럼, 문화 공연, 교류 행사 등을 펼쳤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통일 위한 재외동포 역할 모색한 자리

79개국 400여 명 한자리 모여 모국과의 상생발전 논의

세계 각국 한인사회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3~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렸다.

‘더 커진 하나, 한반도의 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79개국 400여 명의 한인회장과 국내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해 지역별 현안토론, 정책포럼, 문화 공연, 교류 행사 등을 펼쳤다.

특히 최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한반도 긴장완화의 흐름 속에서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한인사회의 역할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1

3일 오후 열린 개회식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대회 공동의장인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각국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 공동의장인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한인회 간 소통과 화합은 물론, 통일을 위한 동포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뜻을 모으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명균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난 9월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해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을 마중물 삼아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 · 안보공동체로 발전시켜 갈 것”이라며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당당한 주체인 동포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드림뮤지컬 극단의 축하공연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환영 만찬으로 첫날의 공식행사는 종료됐다.

“평화정착 위한 정부 노력 지지” 결의

이틀째인 4일에는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지역별 현안토론 등 본격적인 회의와 강연을 통해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5일 한인회장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모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대회 폐막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모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재외동포’를 삽입하고, 한민족의 상호 이해와 화합 증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념관’을 건립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들은 또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성숙한 한인커뮤니티를 만들어가며 차세대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장학금 1천800여만 원을 모아 국내외 차세대 인재 육성을 돕는 장학재단인 글로벌한상드림에 전달했다.

이번 대회 공동의장인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공로패를 받았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로 선정된 탄자니아한인회, 미 LA한

2

3

4

인회, 재일본한국인연합회, 재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 엘살바도르 한인회 등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한 이사장은 환송사에서 "모국의 평화정착과 번영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라며 모국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원동력이자 징검다리 역할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한반도 분단 · 대결 넘어 평화로"

5일 오전에 열린 '제12회 한인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5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남북이 항구적인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동차와 기차로 고국에 방문하는 꿈,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함께 번영하는 꿈, 여러분과 함께 꼭 이뤄내고 싶은 꿈이다"라며 "우리는 지금 분단 · 대결 시대를 넘어 평화의 한반도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표해 오공태 전 재일민단 단장(무궁화장), 김재훈 미 보잉연구소 기술이사(모란장), 고상구 베트남 (주)케이앤케이글로벌 회장(동백장), 현광훈 호주 퀸즐랜드한인회장(국민포장), 신예선 미 샌프란시스코 한국문학인협회 명예회장(대통령표창) 등이 정부 포장을 수상했다.

이어 수잔 콕스 홀트인터내셔널 회장의 '한인 입양인, 글로벌 사회의 시민'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열렸다.

내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는 이숙순 재중국한국인회 회장과 강인희 러시아 · CIS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선출됐다. 창

1.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유라시아 철도 퍼포먼스를 위해 대학생이 전달한 기차모형을 받은 뒤 해외지역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79개국 400여 명의 한인회장과 국내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가했다.

3.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자들은 지역별 · 대륙별 현안을 토론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재외동포의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4. 대회 마지막날 한인회장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모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1

남북 정상, '핵없는 한반도' 원칙, 비핵화 구체방안 담은 '평양공동선언' 채택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참관하에 영구폐기 밝혀

한반도 평화체제 여정의 중요 변곡점으로 꼽힌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간 평양 정상회담 일정이 9월 20일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에 걸친 회담 끝에 '핵 없는 한반도' 원칙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등을 명문화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하는 등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역시 한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9월 18일 오전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 평양 국제공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북이자 김 위원장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며, 지난 5월 26일 판문점회담 이후 115일 만의 남북정상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항 환영행사와 공동 카퍼레이드 등을 가진 뒤 첫날 오후부터 곧바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두 정상의 논의 테이블에는 비핵화 · 남북관계 개선 · 군사긴장 및 전쟁위

협 종식이라는 3대 의제가 올라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첫날인 9월 18일에는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2시간가량 회담을 했으나 별도의 합의사항 발표는 하지 않았다. 이틀째인 19일에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직접 찾아가 회담한 끝에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여기서 두 정상은 최고 난제로 지목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등 기존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적시했다. 나아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양측의 비핵화 합의에 '+α'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 경우 비공개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적대 행위 전면중지, 靑 "사실상 종전 선언"

군사긴장 완화에 대해선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했고, 함께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라고까지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특히 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6번에선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라고 밝혀, 남북정상의 수시 만남이 실현되며 남북관계가 한층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키웠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분단 후 북한 최고지도자로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 연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로드맵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가 더해진 셈이자,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의 협력이 깊어진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왔다.

백두산 함께 방문, 남북 정상 신뢰과시

실제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방북 기간 내내 다수의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깊은 신뢰관계를 과시했다. 첫날 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문 대통령을 영접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에는 문 대통령이 5·1 경기장에서 벌어진 집단체조를 관람하고 15만 명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서 대규모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9월 20일 오전 백두산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방북 일정을 마무리했다. 두 정상은 백두산 장군봉에 함께 올라 천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창

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9월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9월 20일 오전 김 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아온 제주도 한라산 물을 꺼내 천지 물과 합수하고 있다.
3.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이틀째인 9월 19일 밤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

3

4

81년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죽음의 유배길' 6,500km

고려인 17만명, 이유 · 행선지 모른 채 화물칸서 짐짝처럼… 1만여 명 사망

1. 연해주에서 끌려온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첫발을 디딘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의 정착 기념비. 지금은 공동묘지로 변해 고려인들이 토굴을 파고 살았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2012년 카자흐 고려인협회가 세운 비석만이 당시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다.
2. 1937년 9월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이 첫발을 내린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역.

연해주 고려인사회는 1922년을 기점으로 독립의 꿈은 멀어지는 듯하고 모국과의 관계도 단절돼 한민족 정체성이 엷어지기는 했으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나갔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나마 어렵게 자리 잡은 터전을 버리고, 세간살이는 물론 수확을 앞둔 농작물까지 남겨둔 채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나야 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스탈린과 인민위원장 몰로토프는 1937년 8월 21일 '극동 지방 국경 부근 구역에서 고려인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문제에 관해'란 극비명령서에 서명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강제이주 앞두고 지도자급 2천500여 명 처형

강제이주에 앞서 소련 정부는 고려인 지도자급 인사 2천500여 명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했다. 공포심을 불어넣어 저항 의지를 꺾고 조직적인 반발을 막으려는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강제이주는 9월부터 12월까지 급박하게 진행됐다. 불과 며칠 만에 통보를 받고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등 집결지에 모여 왜 끌려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시베리아횡단열차의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려 옮겨졌다. 아무런 위생시설도 없고 방한 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열차에서 한 달간 6천500km를 달리는 과정에서 굶주림과 추위 등으로 희생자가 속출했다. 가족들은 기차가 정차할 때 시체를 담요에 둘둘 말아 철로 변에 파묻고 길을 떠나야 했다. 11월 초에는 하바롭스크 인근 베리노역을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돼 21명이 죽고 50여 명이 다치는 사고도 일어났다.

1938년의 한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 1천 명당 42명이 사망했고 어린이는 5명에 1명꼴로 숨졌다고 한다. 다른 기록은 1만1천여 명, 혹은 1만6천여 명이 이동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 기아

등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임영상 전 한국외대 교수는 "고려인 가운데 1935~1938년생이 드문 것은 혹독한 강제이주를 겪으며 특히 갓난아기가 많이 죽어 나간 탓"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런 보상도 없어… 스탈린 사후 감시 · 차별 중단

1937년 12월 5일 문서에는 카자흐스탄에 2만141가구 9만5천427명, 우즈베키스탄에 1만6천79가구 7만3천990명, 타지키스탄에 13가구 89명, 키르기스스탄에 215가구 421명 등 총 3만6천448가구 16만9천927명이 강제이주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카자흐스탄에 배치된 고려인 중 500여 가구는 이듬해 초 러시아 아스트라한 지역으로 재이주 됐다. 허허벌판에 버려진 고려인들은 토굴을 파고 갈대로 지붕을 이어 급한 대로 눈보라를 피했다. 가져온 양식은 금세 동이나 긴 겨울을 초근목피로 연명해야 했다. 그래도 볍씨를 비롯한 곡물과 채소 종자만은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가 이듬해 봄이 되자 황무지를 논밭으로 일궈 뿌렸다.

중앙정부가 극동 지역 인민위원회에 전달한 문서에는 고려인들이 남겨둔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인민위원회에도 고려인 이주민에 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소련 당국은 보상과 지원은커녕 일본과 같은 적성(敵性) 국민으로 낙인찍어 고려인을 탄압했다. 고려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치안기관의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민족학교도 폐쇄되고 정계나 공직 진출에도 제한받았다. 고려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은 1953년 스탈린이 죽고 나서야 중단됐다.

1993년, 강제이주 불법성 인정으로 명예회복

스탈린 정권이 왜 강제이주를 명령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공식 문서에는 '극동 지역에서 일본 간첩 행위의 침투를 막기 위해'라고 기록돼 있다. 러시아인들은 고려인과 일본인을 분간하지 못했고, 실제로도 일본이 조선인 앞잡이들을 스파이로 침투시킨 사례가 있다. 또 소련이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면 고려인들이 일본 편을 들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는 고려인으로서는 이 같은 소련의 인식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는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고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노동력이 부족한 중앙아시아를 개발하기 위해 농사에 뛰어난 고려인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대표적이다. 이창주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석좌교수는 "고려인이 신문을 내고 학교를 세우고 정치결사체를 조직해 군사화까지 꾀한 것이 강제이주 명령을 내린 가장 주요한 배경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부영 전 국회의원(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은 "독일 나치 정권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하고 일본이 중일전쟁을 벌이자 고려인이 접경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 안보 불안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격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 최고회의는 1993년 4월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강제이주가 불법적 조치였음을 인정하고 옛 연고지로 돌아갈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지 고려인들은 러시아인들과의 갈등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강제이주란 말 대신 정주란 표현을 쓰는 게 단적인 사례다. 창

3

4

5

3.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카자흐스탄 국립 카자흐스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고려인 정주 80주년 기념 사진전 '까레이쯔' 전시작품 중 94세의 나주임 할머니. 1925년 블라디보스토크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1937년 당시 12살의 나이로 부모와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되었다.

4. 81년 전 각각 15세와 12세의 나이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끌려온 곽응호(오른쪽) 씨와 천억실 씨가 지난해 8월 1일 고려인 첫 정착지인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의 바슈토베 마을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회상열차' 탐방단이 주최한 '고려인 강제이주 희생자 진혼제'에 참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5.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일인 지난해 9월 9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고려인 희생자 독립운동가 추모식에서 헌관들이 제례를 올리고 있다.

“북한 비핵화 목표 향한 한 · 미 간극 좁히는 ‘중간자’ 역할 하고 싶다”

美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아시아 책임자 자리 오른 **오미연** 국장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9월 13일 전략 · 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책임자에 오미연(40) 신임 국장(Director)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몇 년 전 신설된 이래 공식 국장 자리는 공석으로 있다가 최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과 맞물려 아시아 이슈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식으로 채워지게 됐다. 이는 최근 미국 내 한반도 관련 수요가 늘면서 워싱턴 주변의 싱크탱크들이 관련 분야를 키우는 흐름과도 맞닿아있다. 오 국장은 연세대 졸업 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과 존스홉킨스대 국제정치대학원에서 각각 석 · 박사 학위를 받은 ‘유학파’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2016년 3월 애틀랜틱 카운슬에 합류,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해왔다.

미국정부의 정책 형성과 인재창고라는 측면에서 고유의 기능을 하는 워싱턴DC 싱크탱크 사회의 높은 장벽을 뚫고 ‘토종 한국인’으로서는 흔치 않게 2년 만에 초고속 내부 승진해, 아시아 총괄 책임자 자리에 오르게 된 케이스이다. 여기에 ‘여성’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동양계 외국 여성으로서 두 개의 ‘유리 천장’을 깼다는 얘기가 싱크탱크 주변에서 나온다. 처음 싱크탱크 활동에 도전장을 던졌을 때 주변에서는 ‘좁은 문’을 들어 “살아남기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 높은 문턱을 느낄 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 · 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 이어 올해에도 2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 신임 국장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한미 간 서로의 해법이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생각을 각각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간극을 좁히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싶다. 한반도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5 트랙의 활발한 대화와 코디네이터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어 배우려는 학생 크게 늘어 고국의 지원 절실”

동티모르大에서 5년째 자비로 한국학센터 운영하는 **최창원** 교수

동티모르국립대 한국학센터는 2013년 7월 문을 열었다. 2008년부터 이 대학에서 근무하는 최창원(사진 왼쪽) 교수(개발경제학과)의 주도로 대학의 정식 인가를 받아 개설했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와 기관 등의 후원금 없이 5년째 자비를 들여 한국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9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쉼 없이 고민하고 또한 노력하지만 갈수록 한국학센터가 커지고 있어 이제는 외부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열악한 개도국 명문대가 한국학센터 설치를 위해 기금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매칭 펀드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학 진흥 관련 국내 기관들은 ‘매칭 펀드식 지원’ 등의 규정을 내세우며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다.

최 교수는 “동티모르 유일의 국립대학인 이곳 한국학센터와

한국어학과의 인기는 다른 언어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전했다. 초창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수강생이 20~30명 수준이던 것이 올해 200명 넘게 몰려드는 바람에 빈 강의실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강사는 최 교수와 한국어 교육학 석사인 부인 최현주(사진 오른쪽) 씨, 한국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동티모르인 2명, 선문대 학생 등 5명이다. 이들은 한 푼의 급여도 없이 재능기부로 수업한다.

"강의실과 교사 부족으로 학생들은 자리가 모자라 서서 수업을 받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죠. 이제 자비로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규모가 커졌어요." 한국어의 열기는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최 교수는 분석했다. 지난해 동티모르의 경제는 마이너스 1.8% 성장을 했고, 상황이 좋지 않아 학생들이 한국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한국학센터에서 교육받은 동티모르인은 이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인적자원이 될 날을 꿈꾸고 있다"며 "한국학센터가 지나오고 가야 할 길은 분명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성과를 내서 공직사회에 한인은 일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싶다"

아르헨티나 정부 공공혁신부문 최고 책임자 변얼 씨… 3형제가 모두 고위 공직자

"아르헨티나는 매년 10만여 명의 10대 여성이 임신하는데 원하지 않게 아기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 중인 변얼(27) 아르헨티나 현대화부 공공혁신부문 최고 책임자는 9월 20일 "부서에서는 우선 피임 등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꿈을 포기 않고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혁신을 통해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선진화하려고 2016년에 현대화부를 신설했다. 이 부서의 핵심분야인 공공혁신을 이끄는 수장으로 발탁된 변 씨는 형과 동생 등 3형제가 모두 공직에 몸을 담아 주목을 받고 있다. 장남인 변겨레 씨는 문화부 차관보를 지냈고, 동생인 변결 씨는 대통령 연설담당 비서로 재직하고 있다.

2016년 조직이 출범할 때부터 함께 한 변 씨는 "다민족국가인 아르헨티나는 소수민족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개방화된 사회"라며 "아르헨티나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고 한인의 위상도 높일 기회라 싶어 제안이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경영분야 1위인 또르꽈또 디 델라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후 대학원에서 금융학으로 석사를 마쳤다. 대학원 재학시절부터 뇌과학 응용 혁신 분야 컨설팅회사에 재직하면서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덕분에 현대화부가 신설될 때 합류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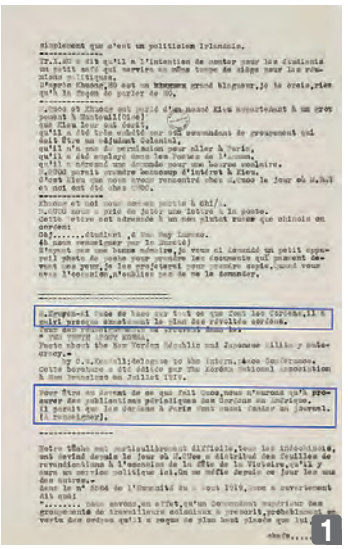
변 씨는 "한인 차세대들은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아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공직에 근무하는 건 우리 형제가 유일하다"며 "좋은 성과를 내서 공직사회에 한인은 일 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싶다. 그게 후배들의 공무원 진출을 돕는 일"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창

한민족 공감

호찌민,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인사들과의 교류, 희귀자료에서 첫 확인

"호찌민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

1920년 전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당시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호찌민(胡志明 · 1890~1969)이 파리에서 약소국의 설움과 독립에의 열망을 나눈 내용이 프랑스 정부자료로 처음 확인됐다. 호찌민이 젊은 시절 파리에 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감화돼 이들과 밀접히 교류하고, 독립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희귀자료다. 호찌민을 밀착 감시하던 파리의 경찰관은 이런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고 이 문건들은 프랑스 자료관을 뒤지던 재불 한국사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다.


1

2

1. 100년 전 프랑스 경찰이 기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과 호찌민 간 교류 내용. (사진은 파리 7대학 박사과정 이장규씨 제공, 프랑스국립해외영토자료관 소장자료)
2.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가 있던 프랑스 파리 시내 건물.

한국사 연구자 이장규 씨(파리 7대학 박사과정)는 프랑스국립해외영토자료관(ANOM)에서 찾아낸 자료를 9월 30일 공개했다. 파리의 정보경찰 장(Jean)이라는 인물이 1919~1920년 작성한 보고서로 당시 프랑스에 체류하던 호찌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겼다. 중요한 것은 호찌민을 감시하던 프랑스 경찰이 대한독립의 당위를 강대국에 알리던 임시정부 인사들의 활동상까지도 함께 상세한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파리평화회의에서 강대국들을 상대로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파리위원부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었다.

이 자료에는 호찌민이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의 핵심인물 김규식, 황기환, 조소앙, 윤해 등을 만나 교류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특히 그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모범으로 삼아 활동한 것이 눈에 띈다. 경찰관 '장'은 "호찌민은 한국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는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인의 계획을 거의 똑같이 따르고 있다"고 적었다. 임정 파리위원부 인사들의 활동계획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전망도 이렇게 덧붙인다. "호찌민의 계획에 대비하려면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펴낸 간행물들을 살펴봐야 한다. 파리의 한국인들도 간행물을 창간하려는 것 같다." 호찌민은 임시정부 외무총장이자 파리위원부 대표였던 김규식(훗날 임정 부주석)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호찌민이 김규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프랑스 자료에 자세히 담겼다.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들은 3 · 1 운동을 전후해 파리에서 체류하던 임시정부 인사들의 활약이 베트남의 해방투쟁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입증하는 희귀 자료로 평가된다. 실제로 호찌민은 임시정부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의 압제에 신음하던 한국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됐고, 프랑스 일간지 르 포퓔레르에 1919년 '인도차이나와 한국'이라는 글을 투고, 일본과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비교하기도 했다. 자료를 찾아낸 이장규 씨는 "이 자료는 호찌민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주인공은 임시정부 인사들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이 기댈 데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파리에서 활약하던 모습이 생생히 담겼다"고 말했다. 창

지구촌 통신원

11월 美중간선거… 20년 만에 한국계 의원 탄생할까… '숖트리오' 뛴다

캘리포니아 영 김, 정글 프라이머리 1위에 지지율 앞서 당선 가능성

1999년 1월 3일 캘리포니아 41선거구 3선의 김창준(79 · 제이 김) 연방 하원의원이 워싱턴DC 의사당을 떠난 이래로 미국 연방 의회(상 · 하원)에 한국계 의원을 진출시키자는 재미 한인 사회의 열망은 20년째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오랜 암흑기를 끝내고자 3명의 한인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캘리포니아 39선거구의 공화당 영 김(56 · 한국명 김영옥) 후보와 뉴저지 3선거구의 민주당 앤디 김(36) 후보, 펜실베이니아 5선거구의 공화당 펄 김(39 · 한국명 김희은)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성(姓)이 같아 '김 트리오'로도 불리는 이들 한인 후보는 소속당과 출신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해 미 전역에 한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높이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1월 미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영 김 후보와 앤디 김 후보.

영 김 후보는 이들 중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점쳐진다. '친한파'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으로 21년간 일한 그는 2014년 주 하원의원이 된 데 이어 올해 처음 연방하원에 도전장을 냈으며, 무려 17명의 후보가 난립한 지난 6월 정글 프라이머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와 맞대결을 벌인다. 지난달 만모스대학 여론조사에서는 영 김 후보가 50%의 지지율로 시스네로스 후보(42%)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스오렌지카운티에 속하는 선거구에 한인이 많은 풀러턴 등이 포함된 점도 강점이다. 영 김 후보는 특히 그간 한미의원연맹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선되면 "한미관계의 플랫폼을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보전문가 출신인 앤디 김 후보는 뉴저지에서 공화당 현역 톰 맥아더 의원과 맞붙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낸 인연으로 최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 선언을 받았다. 해당 선거구가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지만 반(反) 트럼프 바람이 거세게 불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옥스퍼드 로즈장학생 출신의 앤디 김 후보는 최근 인프라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공약을 잇달아 내놓는 등 트럼프 행정부 감세정책에 반기를 들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펄 김 후보는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메리 게이 스캔런 후보와 여성 법조인 간의 한판 대결을 펼친다. 펄 김 후보는 2007년부터 주 검찰청 검사를 지냈고 지난해 주 검찰청 수석 부총장에 임명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델라웨어 카운티 공화당위원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고 본선에 직행했다. 스캔런 후보는 10명이나 경합한 예비선거에서 26%의 탄탄한 지지를 받은 데다 민주당 바람에 편승하고 있어 지지율에서는 강세를 보인다. 여론조사에서는 스캔런 후보가 60%대 지지율로 30%대에 그친 펄 김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워낙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옥철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교육부 설립인가, 한국 학력 인정
김현식 이사장, 아낌없는 지원으로 학교설립에 앞장서

한인 1만여 명이 거주하는 캄보디아에 프놈펜 한국국제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한다. 프놈펜한국국제학교(이사장 김현식)는 8월 27일 한국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인가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세계 재외 한국학교는 중국, 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 33개로 늘었다. 프놈펜 한국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교육 과정으로 1~6학년 학급당 10명으로 편제된다. 지난해 8월 병설 유치원을 정식 개원한 데 이어 지난 1월부터는 초등학교 1~3학년 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국제학교가 내년 3월 정식 개교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유치원 개원식 장면.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제공.

교육부의 정식 설립인가 승인으로 앞으로는 정부지원금 등 재정 지원 외에 정식 교사 자격을 갖춘 교직원 파견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한국의 초등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밟기에 앞으로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별도의 검정고시 없이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김 이사장은 "3년여의 기다림과 준비 끝에 마침내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한인들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며 "올해 말까지 교직원 신규채용 등을 거쳐 내년 3월 초 정식으로 개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놈펜 센속구에 있는 이 학교는 2015년 12월 한인 공청회를 시작으로 설립이 본격화됐다. 당시 제10대 한인회장에 취임한 김 이사장은 선거 공약으로 한국국제학교 설립을 내놨고, 임기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용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부족한 학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주택을 매각하는 등 앞장섰다.

中 하얼빈 '홈타민컵 조선족 어린이 축제' 성료… 각 부문 시상
1천여 명 참가해 60명 결선, 조선족 인재 육성하는 잔치로 성장

중국 조선족 어린이들의 문예 솜씨 경연장인 '제14회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 축제'가 9월 1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이 후원하고 흑룡강조선어방송국·중국국제방송국 조선어부·흑룡강성교육학원민족교연부가 주최한 이 행사는 15일부터 이틀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글짓기·이야기·노래·피아노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이날 오전 하얼빈 조선족 제1중학교에서 열린 폐막식에서는 부문별 결과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 성뿐만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네이멍구 등 중국 전역에서 1천여 명이 참가했고,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60명이 본선에서 실력을 겨뤘다. 글짓기 부문 대상은 '여름방학에 생긴 일'을 주제로 작문을 제출한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조선족초등학교의 김연정 양에게 돌아갔다. 김 양은 여름방학 기간 헤이룽장성 대표로 국제태권도연맹 주최 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하기까지 노력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샀다. 그는 시상식에서 대상작 원고를 낭독해 다시 한 번 박수갈채를 받았다.

9월 16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조선족제1중학교에서 열린 '제14회 홈타민컵 전국 조선족 어린이 방송문화 축제' 폐막식에서 글짓기·이야기·노래·피아노 등 4개 부문 대상에 선정된 수상자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조선족 초·중학생 10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2002년 첫회부터 이 행사를 단독 후원해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매년 이 지역의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한 우수 학생을 발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中 신한민속촌서 '한가위 한마당'… 송편 빚고 국악공연 즐겨
"추석의 의미도 되새기고 공동체 정신도 함양하는 뜻깊은 자리"

중국 랴오닝성 푸순시 신한민속촌(촌장 김관식)은 9월 15일 추석을 앞두고 송편 솜씨를 겨루고 국악 공연을 펼친 '한가위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주선양한국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선양지사, 한중교류문화원, 동북3성한인연합회, 재선양대한체육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푸순시 · 선양시 조선족 노인협회, 요녕민족사범고등학교, 선양시 조선족제2중학교 학생과 졸업생 등 8개 단체에서 조선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송편을 빚어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었고, 주최 측은 송편을 잘 빚은 26명을 선발해 금 · 은 · 동상을 수여했다.

중국 랴오닝성 푸순시 신한민속촌은 9월 15일 송편 빚기 경연과 전통 공연이 어우러진 '한가위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축하 공연으로 한중교류문화원 어린이예술단의 가야금병창과 사물놀이, 선양장강예술단의 농악무, 선양서탑 · 안도 · 장강예술단의 민요, 선양연합회 예술단 등의 전통 무용이 이어졌다.

선양시연합회예술단 단원으로 금상을 받은 독고명자 씨는 "팥 · 깨 · 콩 등을 넣고 가마솥에 솔잎을 넣어 찌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것을 높이 평가받은 거 같다"며 "요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송편을) 사서 먹었는데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빚어야겠다"며 기뻐했다.

김관식 촌장은 "잊혀 가는 전통문화를 차세대에 전해주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명절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손명식 동북3성한인연합회 회장은 "공동체 정신도 함양할 수 있어서 뜻깊었던 자리"라며 "매년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에미상 레드카펫 수놓은 한복…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 모친에 '시선 집중'
여우주연상 후보 오른 딸 응원하러 입고 와… "자랑스럽다"며 볼에 키스도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의 모친이 한복을 입고 나와 스타가 됐다. BBC 아메리카가 제작한 '킬링 이브'에 출연한 샌드라 오는 9월 17일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0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되는 영광을 누렸다. 샌드라 오는 아쉽게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딸을 응원하러 온 어머니 전영남 씨의 한복 차림은 큰 화제를 모았다.

9월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제 70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가 한복을 입은 모친 전영남 씨와 나란히 서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전 씨가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수의 시청자가 황홀해 했다고 전했다. BBC는 "많은 사람이 레드카펫에서 한복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한다"면서 "한복은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한국계 인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한국계 미국인 TV 프로듀서인 앨버트 김은 트위터를 통해 "샌드라 오의 모친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복을 입었다!"며 "K팝은 잊어라. 이것이야말로 한국인들이 (미국에) 왔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에게 더욱 감동을 준 장면은 딸을 향한 노모의 아낌없는 사랑 표현이었다. 전 씨는 미 연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한 뒤 샌드라 오의 볼에 키스를 해줬다. 이 장면을 두고 BBC는 "많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부모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식을 향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흔치 않다"고 전했다.

유럽 차세대 한국 전문가 로마 집결… “한국학 전파 첨병 역할”
제15회 유럽 한국학 대학원생 컨퍼런스에 50여 명 참석

유럽 내 차세대 한국 전문가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집결해 한국의 다양한 면모에 대해 토의하고, 한국학이 나아갈 방향 모색에 나섰다. 제15회 유럽 한국학 대학원생 콘퍼런스가 9월 27일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에서 막이 올랐다. 이 포럼은 유럽에서 한국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학 연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2004년 독일 보훔에서 첫발을 뗀 이래 영국 런던, 러시아 모스크바, 덴마크 코펜하겐 등 다양한 유럽 도시를 돌며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9월 27일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에서 ‘제15회 유럽 한국학 대학원생 콘퍼런스’가 개막했다.

라 사피엔차대 동양학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올해 행사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한국학 박사과정 학생들은 물론 한국, 미국, 일본 등의 한국학 연구자와 교수 등 약 15개국 출신의 한국학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9일까지 사흘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한국 영화, 한국 문학, 한국어의 역사와 교육법, 한국의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 한국의 해외 입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를 이어갔다. 알레산드라 브레치 라 사피엔차대학 동양학연구소장은 “영화와 K-팝, 한식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럽에서의 한국학 연구도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다”며 “한국학 전파의 ‘첨병’들이 모인 이번 콘퍼런스로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한국학 연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니 강진 실종 한인 사망 확인… “호텔 잔해 속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자 1천763명으로 늘어… “한인 동포, 구호물자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인도네시아 강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본 술라웨시 섬 팔루 지역에서 실종됐던 한인 동포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월 4일 “팔루 지역 지진으로 실종됐던 발리 거주 교민 1명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색 결과, 숙소 로아로아호텔 잔해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술라웨시 섬에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당시 진앙인 동갈라 리젠시와 팔루에 있던 한인 동포들은 10월 2일 당시 상황이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고 털어놨다. 3년 전부터 팔루에서 제재소를 운영해온 한인 기업인 신 모(53)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가 되기 10분쯤 사람이 넘어질 정도의 지진이 났고, 뒤이어 더 강한 지진이 덮쳤다”고 말했다. 신 씨는 “냉장고와 장롱이 다 넘어지고 담장도 무너졌다. 달리던 차들도 뒤집힐 정도였다”면서 “바닷물이 쫙 빠지고 소, 염소, 개 등 동물이 도망가더니 10여 분 뒤 바닷물이 해안을 덮쳤다”고 말했다. 그는 팔루 시내와 주변 해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파악조차 하기 힘든 형편이라면서 “도로변에 보호자가 없는 시신이 방치돼 널려 있었다”고 말했다. 팔루에 남아 있는 동포들은 전력 공급이 재개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인 데다 현장에 전달되는 식료품 등 구호물자가 부족한 탓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술라웨시 섬을 덮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월 7일 현재 1천763명으로 늘었고 중상자 2천632명에 실종자는 265명이다. 창

규모 7.5 강진과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동갈라 리젠시의 한 해안가 주택 지역. 대형 선박이 밀려 올라와 있다.

中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인구 75만7천여 명… 자치주 전체 인구의 36%

중국 지린(吉林) 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총인구가 2017년 말 현재 75만 7천 238명이라고 연변 TV가 9월 14일 전했다. 이 방송은 정부 통계를 인용해 "자치주 총인구 210만 1천387명 중 조선족은 36.04%를 차지한다"며 "2016년 대비 1천705명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족 인구는 2010년 82만여 명, 2013년 79만9천여 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 시내 야경)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새 회장에 전용창 씨 선출

세계 30여 개국에서 동포신문을 운영하는 언론인들의 모임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약칭 세언협)는 9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용창(사진) 공동대표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 회장은 1989년 태국에 진출해 인쇄업을 하면서 주간지 '교민광장'을 발행하고 있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태국한인회장 등을 지냈다. 세언협은 전날 '차세대 한글교육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할린 한인에게 나눠줄 '우리 달력' 제작 후원해주세요"

재외동포 도움 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KIN)는 사할린 한인에게 보낼 내년도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KIN은 일본강점기 사할린에 끌려가 살아남은 1세와 그 후손을 위해 2013년부터 음력, 명절 등과 한국 국경일 등이 표기된 '우리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달력 제작 후원은 온라인 모금 사이트(together.kakao.com/fundraisings/57155)나 KIN의 계좌(우리은행 1006-301-227783)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뉴욕한인회, 美하원 민주당 간사에 '평양공동선언' 입장 전달

뉴욕한인회(사진)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한인사회 입장을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김민선 회장은 엥겔 의원에게 "최근 한반도의 화해 무드는 남북 평화에 있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책을 초당적으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월드옥타, 창원대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모색… 차기 회장 선출

전 세계 74개국 146개 도시에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 회장 박기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연다. 행사에는 월드옥타 지회 소속 회원과 차세대 회원, 국내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관계자, 정부 인사 등 1천3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 사업인 '1회원사-1모국 청년 채용'을 진행하고 20대 회장을 선출한다.

괌에서 첫 '코리안페스티벌', 1만여 명 환호… 현지 언론 크게 보도

괌한인회가 미국령인 괌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제1회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9월 22일 오후 투몬의 메모리얼파크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인 동포와 현지인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박재문 한인회장은 "일본 커뮤니티에서 36년째 열어온 페스티벌 못지않게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아 뿌듯하다. 앞으로 매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16만의 괌에는 6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광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파묻혀 있던 '直指'와 외규장각 '의궤' 찾아낸 서지학자 박병선

박병선 (1923~2011) 박사는 우리 문화유산을 끔찍이 사랑한 역사학자로 통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에서 사서로 근무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 직지)을 처음으로 발견한 데 이어,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도 발견해 반환운동에 불을 지폈다.

직지심체요절이 1455년판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빠른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직지 대모(代母)'라는 별명도 얻었다. 서울의 부유한 가톨릭 가정에서 3녀2남중 셋째로 태어났다.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뒤 1955년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대한민국 프랑스 여자 유학생 1호이다. 이후 프랑스 소르본대학과 프랑스고등교육원에서 역사학과 종교학으로 박사 과정까지 밟은 뒤 1967년 BNF에 들어가 근무하면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증 연구를 본격 시작했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직지)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재불(在佛)동포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의 생전 모습.

조국을 떠나온 지 12년째인 1967년 그날도 동양 서적들이 쌓여있는 서고를 뒤지던 중 한쪽 구석에 파묻혀 있는 책 한 권을 뽑아들게 되었다. 표지에는 '直指'라는 한자가 쓰여 있었고, 아래쪽에는 'COREEN'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벅찬 감격도 잠시, 직지가 프랑스에 오게 된 경위를 밝혀냈다. 이어 실험작업에 몰두한 끝에 5년 만에 금속활자 인쇄본임을 고증하는 데 성공했고,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

> **의궤 찾아낸 후 도서관 떠났지만 연구 계속하고 반환운동 앞장 서**

이번에는 조선왕실 외규장각 의궤(儀軌 · 조선왕실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책)를 찾는 일에 나섰다. 서고를 뒤지고 탐문 작업을 계속한 끝에 1977년 BNF 베르사이유 별관 창고에서 먼지에 쌓인 의궤를 찾아냈다. 1866년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당해 고국을 떠난 지 11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의궤를 찾아냈으나 박 박사는 도서관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는다. 13년간 몸담아 왔던 일터를 떠나야만 했지만, 그는 이용자 신분으로 도서관에 매일 나가 의궤를 열람, 한 권 한 권의 내용을 상세히 풀어내는 해제 작업을 계속해 연구 내용을 책으로 펴냈다. 그러면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요청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의 노력은 한국에서 의궤 반환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고 2011년 4월 마침내 의궤 297권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나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프랑스는 의궤를 한국 소유로 인정하고 완전히 돌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빌려주겠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박사는 "잘못된 일"이라며 "하루빨리 대여를 반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1월 한국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고도 10개월 만에 프랑스로 되돌아와 타계 직전까지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계기가 된 병인양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저술을 준비해왔다. 한국 정부는 1999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그는 한국 어린이들을 보면 늘 이 말을 들려주곤 했다. "무엇을 하든 인내와 끈기를 가지세요. 시작했으면 끝을 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창

‘현악기 명장’ 스트라디바리 후예로 우뚝 선 20대 한국 청년 정가왕 씨

어린 시절 레고 조립을 유달리 잘하던 한국 청년이 현악기 제작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지 불과 6년 남짓 만에 전설적인 현악기 ‘명장’ 스트라디바리의 후예로 우뚝 섰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현악기 제작 콩쿠르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인 우승자가 나왔다. 재이탈리아 교민 사회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폐막한 ‘제15회 크레모나 국제현악기제작 콩쿠르–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에서 현악기 제작자 정가왕(28) 씨가 첼로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9월 26일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폐막한 제15회 스트라디바리 국제현악기 제작 콩쿠르에서 첼로 부문 우승을 차지한 정가왕 씨.

정 씨는 이번 콩쿠르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이름의 첼로를 출품해 당당히 1위로 호명됐다. 단풍나무로 만든 정 씨의 첼로는 행사를 주최한 크레모나 바이올린박물관 ‘무제오 델 비올리노’에 2만4천 유로(약 3천100만 원)에 매입돼 역대 우승작품들과 함께 박물관에 영구적으로 보관 · 전시된다. 이 박물관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에 활동한 전설적인 바이올린 장인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주세페 과르네리 등이 만든 악기를 소장하고 있는 현악기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스트라디바리와 과르네리의 고향인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스트라디바리의 이름을 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콩쿠르로도 불린다. 3년마다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현악기 명장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 4개 부문에서 갈고닦은 제작 실력을 겨루며 진정한 스트라디바리의 후예를 가리는 ‘꿈의 무대’이다. 악기의 외관과 소리를 10명으로 구성된 현악기 제작 장인과 연주자들이 까다롭게 평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작품이 없으면 시상자를 내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자는 정가왕 씨가 출품한 첼로 부문, 프랑스 장인이 수상한 바이올린 부문에서만 나왔다. 정 씨의 악기는 첼로를 이루는 네 줄의 균형감, 오묘한 악기의 색깔과 깊은 소리 등을 인정받아 이번 대회에 출품된 75대의 첼로 가운데 최고상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 **세계 최고권위 伊 현악기제작 크레모나 콩쿠르서 우승 ‘쾌거’**

1976년 시작된 이 콩쿠르의 42년 역사상 한국인 우승자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대회까지 크레모나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거둔 최고 성적은 동메달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서성덕 씨가 첼로 부문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그동안 첼로와 비올라 부문에서 동메달만 3개가 나왔다. 인천 계산공고 졸업 후 한국외대에 진학했으나 1학기 만에 휴학한 정 씨는 한국에서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바이올린 연주에 흠뻑 빠진 뒤 바이올린 제작자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바이올린 제작과 이탈리아어 등을 익힌 후 이탈리아에 건너와 2012년 크레모나 국제현악기제작학교의 3학년에 편입한 뒤 2015년 졸업한 그는 이듬해 프란체스코 토토 명장의 공방에 들어가 그에게 악기 제작을 직접 배우고, 함께 악기를 만들고 있다. “학교 졸업과 취업, 직장생활 등으로 이어지는 틀에 박힌 삶을 살기보다는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싶어 현악기 제작자의 삶을 택했다”는 정 씨는 “1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첼로를 만들었지만, 우승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꿈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

'세계한인차세대대회'서 참가자들 한민족 정체성 함양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는 24개국에서 80여 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24개국에서 80여 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한 가운데 9월 17~21일 열렸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변 얼 아르헨티나 현대화부 공공혁신 최고책임자 겸 디텔라 대학 교수, 김하나 토론토대학 동아시아 도서관 관장 등 현지 주류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9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4박 5일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정체성을 함양하고 교류 활동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개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병석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중요한 시기에 모국 방문에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며 "대회 기간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교류활동을 벌여 미래의 꿈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정치 · 경제 ·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차세대 리더들 덕분에 거주국에서 한인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요 인사들과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대형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를 꽂으며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 전망'이라는 기조강연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대회 기간에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18일 주류사회에 자리잡기까지의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와 국내 차세대 전문가와 교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등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전시된 증기기관차 앞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19일에는 파주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분단 현실을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세계 평화를 위한 차세대의 역할을 논의했다. 20일에는 경기도 화성과 대부도 등에서 차세대 한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체험 활동도 벌였다.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9개국 16개팀 경연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본선이 9개국 1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9월 5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한민족 문화문화예술 축제 '2018 코리안페스티벌'의 하나로 진행된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가 9월 5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재외동포들의 노래 솜씨 경연장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미국,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9개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6개팀이 참가했다.

이들은 무대에서 준비한 춤 · 노래에 이어 장기자랑을 선보였고, 인터뷰를 통해 타향살이의 희로애락과 모국에 대한 향수를 털어놓기도 했다.

송해, 홍진영의 공동 사회로 현숙, 남진 등 초대가수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펼쳤다.

이 대회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낮 방영되어 국내외 시청자에게 소개됐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노래자랑 대회는 예선에 총 300여 개 팀이 출전할 정도로 동포사회 축제 한마당으로 열렸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내국민들이 재외동포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곤욕은 모욕, 당혹은 곤혹

"미처 생각하지도 않던 질문을 해서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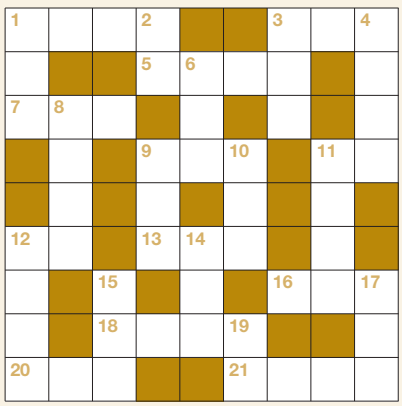
이 문장에서 '곤욕스럽다'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표현일까요? '곤욕'과 '곤혹'이라는 두 단어는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어느 정도는 통하는 듯해서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본래 '곤욕'이라는 말은 심한 모욕이라는 뜻으로 '곤욕을 당하다, 곤욕을 치르다, 곤욕을 겪다'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곤혹'이라는 말은 곤란한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으로, '곤혹하다, 곤혹스럽다, 곤혹을 느끼다'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위의 문장은 미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을 받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기치 못한 질문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모릅니다'가 아니라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는 '얼마나 곤혹을 느꼈는지 모릅니다'로 써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염치없는 사람은 얌체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얌체없는 운전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문장에서 '얌체없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염치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본래 '염치'라는 말은 청렴하고 결백하여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고, 여기에 나오는 '염치없다' 또는 '염치를 모른다'는 표현은 염치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어서 체면도 없고 부끄럼도 없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한다' 또는 '염치없이 어떻게 또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치'의 작은 말로 '얌치'가 있는데, 이것 역시 마음이 깨끗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얌치나 염치가 없는 뻔뻔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 바로 '얌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얌체야' 또는 '그 사람은 너무 얌체 같아서 싫어요'처럼 쓰입니다. 그러므로 '얌체없는 운전자'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염치없는 운전자' 또는 '얌체같은 운전자'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2018년 9월호 정답

유	비	무	환	■	마	당	놀	이
명	단	■	갑	순	이	■	부	모
무	■	찻	잔	■	너	울	■	■
실	수	■	치	■	스	■	장	모
■	제	■	■	■	■	■	군	■
세	비	■	아	■	화	■	봉	급
시	■	용	궁	■	덕	담	■	■
풍	요	■	이	별	■	■	교	주
속	리	산	■	■	임	시	정	부

▶ 오른쪽 방향 열쇠

1. 백두대간의 중심이 되는 산맥
3.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여 베푸는 잔치
5. 어른이 잠을 자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높임말
7.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먹기 위해 집에서 준비해 가는 것
9. '승리하다'라는 뜻의 우리 말
11. 아프리카 초원에서 무리 지어 살며 '백수의 왕'으로 불린다
12. 임금의 아내
13. 주먹을 휘둘러 위압하거나 때리는 짓
16. 언제까지라고 정한 기한이 없음
18.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포개고 앉는 것
20. 황도 위에서 춘분점의 서쪽 90도가 되는 점. '○지○'
21.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 아래쪽 방향 열쇠

1. 우리나라에서 창시되어 세계화된 국제공인 스포츠.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심신 수련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는 호신의 무술
2. 보리를 싹 틔워 만든 맥아(엿기름)로 즙을 만들어 여과한 후, 홉(hop)을 첨가하고 효모로 발효시켜 만든 술
3. 높은 것에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기구로 사닥다리라고도 한다
4. 빙글빙글 도는 의자
6. 한데 수북이 쌓였거나 뭉쳐 있는 더미나 무리
8.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판단하는 뜻의 고사성어
9. 한국 마라톤의 영웅.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2001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이다
10. 다리미로 옷이나 천 따위를 다리는 일
11. 눈동자가 초점이 맞지 않는 사팔눈을 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12. 특정한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서 보이는 주기적인 운동
14. '음식을 먹다' 할 때 먹다의 사동사
15. 야구에서, 투수가 데드볼? 안타 따위로 상대편에 준 점수.
17. 한방에서 쓰는 약. 한약
19. 한글 자모의 넷째 글자

유적에 핀 꽃

인니 암바라와 조선인위안부 수용소를 다녀와서

문인기(인도네시아) 동포문학상 시부문 대상

아침에 일찍 다녀간 비는
허물어져가는 벽에서 눈물로 흐르고
슬픔의 한이라도 서린 듯
오래 닫힌 방에는 한줄기 빛이 관통한다

비라도 오지 않았다면
시류로 메말라가는 순례자로서는
슬픈 역사를 찾기보다는
풍상의 흔적을 벽돌에서 찾으리라.

전쟁의 상흔인가
본래가 피 색인가
비에 젖은 벽채는 피처럼 붉어도
창문은 한 폭의 캔버스가 되었다.

아이비가 감아 덮는 유적
그 사각의 벽 정점에
별같이 모여 핀 보라색 꽃무리
메마른 가슴의 눈으로도 알아본다.

혹여나 유적의 내력을 들을까
보라색 짙은 꽃향기라도 품어낼까
카메라를 들고 다가간 순례자에게
꽃은 슬픈 눈으로 웃는다. 창

새로운 한류의 물결, 싱가포르에 울려퍼진 K-클래식

채혜미 재외동포의 창 싱가포르 통신원

지난 9월 8일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대사 안영집)이 주최한 '2018 싱가포르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특별한 무대가 마련돼 현지인의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K-클래식을 통해 한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보이스 오케스트라 '이마에스트리'의 공연이었다.

보이스오케스트라 이마에스트리가 9월 2일 싱가포르의 보태닉 가든에서 열린 '2018 싱가포르 코리아 페스티벌'에 출연해 열창하고 있다(위). 이마에스트리 공연장을 찾은 청중들.

이들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싱가포르 보태닉 가든'의 석양이 지는 호수 야외무대에서 '그리운 금강산'과 '아리랑' 등 한국 가곡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곡 및 오페라 아리아 등을 새롭게 연주해 한인들은 물론 싱가포르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다.

90여 명의 단원 중 20명이 정상급 오페라 가수들인 이마에스트리는 그 동안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대만,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등 11개국 20여 개의 도시에서 공연하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K-클래식을 전파해 한류의 또 다른 물결을 만들고 있다. 이 무대가 이번 페스티벌의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간 'K-팝'에만 익숙했던 현지인들에게 'K-클래식'을 맛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에 유례없는 남성 오페라 가수들의 에너지가 넘치는 하모니로 세계 정상의 한국 성악 현주소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공연장을 찾은 교민들은 "오랜만에 듣는 우리 가곡들은 해외생활 속에 잊혀져가는 모국어의 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며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타국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한인으로서의 매우 자랑스럽다"고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연을 본 현지인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무대 뒤를 찾아와 "감동과 치유의 시간이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양재무 음악 감독은 "한국 성악은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클래식 한류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비엔나의 뮤직페라인 등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 공연에서 기립박수를 하며 환호를 하는 청중을 보면서 클래식 한류의 미래를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산업은 가장 각광받게 될 산업이다. 이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세계문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주 형태와 장르를 뛰어 넘는 창의적인 시도와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을 조화롭게 성장시켜 나갈 때 국제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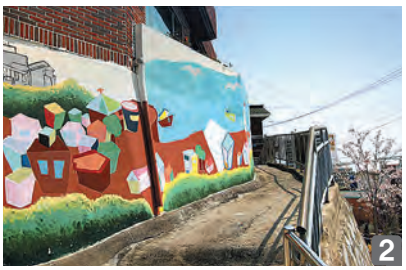
세계는 이제 한국의 클래식을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인 틀을 깨고 무한 변신을 시도하는 클래식 한류는 유럽에서 이미 검증되었기에 이제 동남아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으로 한국의 가곡과 민요가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740만 재외동포가 함께하는 전 세계무대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창

단출하지만 든든한 한 끼 식사…
사계절 전국음식 된 '충무김밥'

김밥 안에 별도의 식재료를 넣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 있어

1


2

부산, 거제, 여수 등을 오가는 뱃길의 중심지였던 통영. 이곳에 가면 충무김밥 식당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여행객의 발길이 잦은 강구안과 통영항 일대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김밥 식당이다 싶을 만큼 많다. 그중 대표적 김밥 거리는 강구안의 통영해안로 일대다. '원조', '3대', '명품', '할매' 등을 간판 문구로 내세운 김밥집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다. 충무김밥이 어떤 매력을 안고 있기에 이처럼 많은 사람이 찾는 걸까?

일반적으로 김밥 하면 주재료인 밥에 단무지, 시금치, 달걀 등의 속 재료를 넣고 김에 싸서 만 뒤 한입 크기로 썰어낸 음식을 말한다. 김밥만으로 다양한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 먹기가 편해 소풍 갈 때나 여행할 때 간편식으로 즐겨 먹지만 여러 식재료가 한데 섞인 관계로 쉽게 상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충무김밥은 일반 김밥과 달리 김밥 안에 별도의 식재료를 넣지 않는 게 특징이다. 맨밥만 김에 말아 싼 뒤 엄지손가락 굵기로 잘라 오징어무침, 무김치, 배추 시래깃국과 함께 먹는다. 김밥에 다른 속 재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 잘 상하지 않는다. 그만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밥 · 오징어무침 · 무김치의 절묘한 어울림

충무김밥은 김밥과 무김치, 오징어무침이 한 세트다. 여기에 따듯한 시래깃국이 추가된다.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김밥이다. 멥쌀에 약간의 찹쌀을 넣고 씻어 불려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는다. 지어진 맨밥을 식힌 뒤 김에 얹어 돌돌 말고 나서 한입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다음은 오징어무침. 내장과 껍질을 제거한 오징어를 끓는 물에 넣고 적당히 삶은 다음에 납작하게 썬다. 그리고 오징어, 양파, 파, 깨소금,

충무김밥의 본고장인 통영시 강구안.
서피랑마을의 서포루에서 내려다본 전경.

1. 심심한 맛의 충무김밥을 매콤 새콤한 무김치, 오징어무침과 함께 먹으면 맛의 조화가 이뤄진다.
2. 알록달록한 벽화로 유명한 동피랑마을.
3. 충무김밥.
4. 무김치
5. 오징어무침.

참기름, 콩간장, 고춧가루 등을 넣고 버무린다. 무김치는 역시 먹기 알맞은 크기로 무를 어슷하게 썰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멸치젓갈, 마늘 등을 넣어 버무린 뒤 숙성시키면 식감 좋은 무김치가 탄생한다. 배추 시래깃국은 충무김밥의 맛을 한껏 느끼게 하는 데 요긴한 역할을 한다. 멸치의 일종인 디포리를 우려낸 육수에 배추와 된장을 넣어 다시 끓이면 부드러운 감촉과 따뜻한 온기의 시래깃국이 만들어진다.

김밥과 무김치, 오징어무침, 시래깃국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 먹으면 된다. 김과 밥만으로 만들어진 김밥은 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지기 마련인데 매콤 새콤한 무김치와 오징어무침을 먹어주면 맛의 조화가 이뤄진다. 맛이 좀 진하다 싶으면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의 시래깃국으로 다스려주면 그만이다. 충무김밥은 40년 가까이 전국음식의 명성과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특히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통영의 김밥식당들 앞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빈다. 이 중 일부는 식당에서 직접 김밥을 먹지만 손님의 80%가량은 아이스팩 등으로 포장해서 가져간다고 한다. 1인분 가격은 5천500원 수준이다.

먹거리 · 볼거리 풍성한 통영

통영에 가면 충무김밥 외에도 먹거리들이 많아 미식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그중 하나가 밀가루와 팥앙금의 맛이 말 그대로 꿀맛인 꿀빵. 강구안 등 통영 곳곳에는 꿀빵 가게들이 경쟁하듯 늘어서 손님을 부른다. 이와 함께 도다리쑥국, 하모회, 전어회, 물메기탕, 멍게비빕밥 등 해산물도 계절마다 넘쳐난다. 역사문화의 고장인 만큼 둘러볼 만한 관광명소 또한 즐비하다.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인 세병관을 비롯한 역사유적은 물론 한려수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통영 케이블카가 그렇다. 벽화의 아름다움이 그만인 동피랑 벽화마을과 지역 출신 문화인의 발자취에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박경리기념관 · 전혁림미술관 · 윤이상기념공원 · 청마문학관도 관광명소 반열에 올라 있다. 창

통영시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

옻칠미술관 → 청마문학관 → 이순신공원 → 세병관 → 충렬사 → 해저터널 → 착량묘 → 통영해양관광공원 → 달아공원 → 통영수산과학관 → 충무마리나콘도 → 통영전통공예관 → 음악분수휴게광장 → 통영케이블카 → 전혁림미술관 → 중앙전통시장 → 남망산조각공원

관광안내

여객선터미널 관광안내소
(055-642-8392)
종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055-650-0581)

식당정보

뚱보할매김밥 (055-645-2619)
문화마당충무김밥 (055-641-0097)

박경리기념관

25년간 집필된 대하소설 토지를 만나러 가자. 박경리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2010년 5월 5일, 박경리기념관이 통영시 산양읍에 문을 열었다. 주위와 잘 조화를 이루는 적갈색 벽돌로 이루어진, 커다란 통유리로 통영의 바다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이 기념관은 입구에서부터 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1926년 10월 28일 통영에서 태어난 박경리 작가의 본명은 '박금이'며 쪽진머리와 수수한 한복차림이 젊은 시절 모습과 진주여고를 졸업하며 결혼한 당시 모습, 6.25전쟁 때 남편이 납북되고 딸과 함께 살았던 때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 그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대표작 '토지' 친필원고와 여권, 편지 등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실, 집필한 책과 작품에 관한 논문 등을 모아놓은 자료실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작가의 집필실을 재현해 놓은 곳을 보면 실제로 작가를 만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기도 한다.

2010년 5월 5일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 선생의 2주기를 맞는 가운데 고인의 고향인 통영시 산양읍에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완공됐다.

재외동포재단, 본부 제주 이전 완료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본부사무소의 제주 이전을 완료하고 9월 10일 기념식을 열어 제주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재단은 제주혁신도시 내 임차 건물인 서귀포시 제2청사로 입주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제주 본부사무소 전경

제2청사 강당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현 외교부 2차관, 송재호 국가발전균형위원장을 비롯해 제주도 정치 · 행정 · 교육 관계기관 기관장과 언론계,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재단 이전을 환영했습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제주가 지구촌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제주 · 동포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제주지역 인재를 지속해서 확대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 유관기관과 상생발전 방안을 공동 모색하면서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 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 · 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 ·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www.hansang.net

HANSANG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

United Hansang, Driving Korea

제1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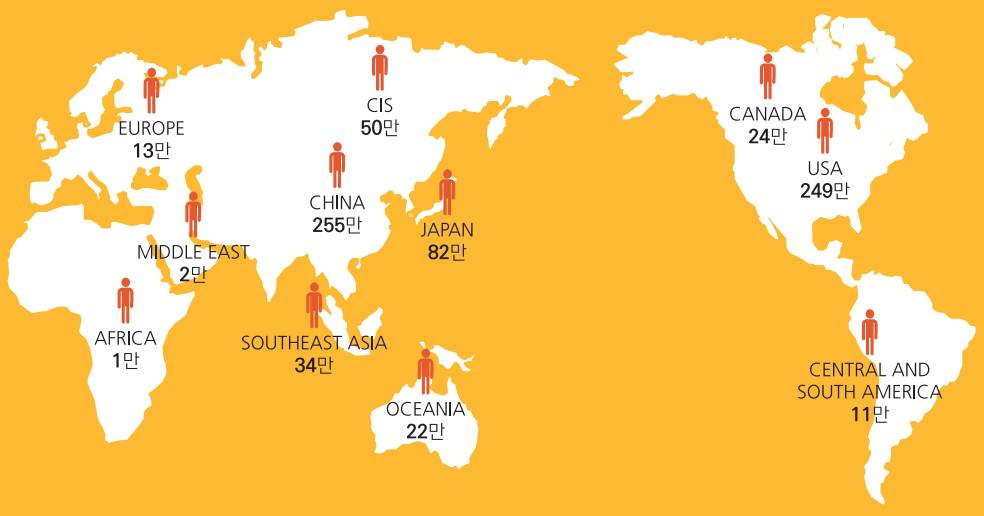
세계한상대회

THE 17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8. 10. 23(화) _ 25(목)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주관 재외동포재단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인천광역시 매일경제·MBN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